

2021년 5월 1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20편 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 (시편 20편 9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85장(통209)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5장 13~23절(구약p.1241)

13.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14.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6.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풀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18.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19.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 말씀선포 / 어리석은 자의 우상 숭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긍휼이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길 위하여 그들에게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사실 벨사살왕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왕의 모습을 보며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행했습니다. 이렇듯 지혜 없이 교만한 자들은,

1.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합니다.

- 벨사살왕이 다니엘을 불러 벽에 쓰인 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그런데 벨사살왕은 이때까지 다니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1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벨사살왕은 그저 왕비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엘에 대해 전해 듣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벨사살왕이 다니엘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선왕 느부갓네살왕 때 있었던 역사에 무관심했음을 말해 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이 경험했던 일을 벨사살왕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았음을 책망합니다. 18~23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왕에게 나와 자신이 섬기는 왕을 감히 책망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왕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지냈던 경험을 먼저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왕은 선왕이 물려준 권력만을 누렸지,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무시했고 무관심했음을 책망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왕에게 하시는 책망이요, 왕을 섬기는 신하로써는 충심어린 충언이었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선왕인 느부갓네살왕의 삶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서 벨사살왕이 교훈을 받았다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는 방자한 일은 행하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에서 교훈을 받아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경비아게 행했다라면 벨사살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왕은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말씀에 무지하며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렇듯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지혜 없이 교만한 자들은,

2.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죄를 범합니다.

-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무지한 벨사살왕은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헛된 우상들에게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받으실 찬송을 우상에게 주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21~23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왕의 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을 행하심같이 오늘날 우상 숭배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과 쾌락과 지위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탐심의 미혹을 받습니다. 인간이 이룬 문명과 과학에 대한 자부심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탐욕을 추구함으로 어리석게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라고 명하십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 보물에 마음을 빼앗길 때 그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도는 명심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는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 집착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교묘하게 우상숭배의 길로 유혹하는 사탄의 꾀계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204장(통379) 주의 말씀 듣고서

◎ 폐 회 / 주기도문